

靈廟寺는 羅代七大伽藍(三國史記職官上七寺成典)의 하나로^③서 沼澤을 埋立하고 三層殿宇(金堂)와 左右經樓(經庫와 鐘樓)에 南門과 廓廡等 具備된 巨刹임^④을 알았고 金堂內에 安置하였던 佛像은 丈六 三尊佛이 었으며 靈廟寺頌과 同一한 釋良志의 所作임을 三國遺事(卷三靈妙寺丈六條와 卷四良志使錫條)에 傳하여준다. 앞으로 寺址整理와 保護策이 時急히 要望되며 西川堤防에 使用된 石燈臺石破片도 一定한 場所에 集合시켜서 옛날의 靈廟寺莊殿을 髣髴케 하는 施策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아진다.

(五, 一三三)

註

- ① 諸鹿央雄 「新羅寺蹟考」 (一九一六油印物)에는 靈妙寺址를 所在 不詳이라 하면서 「本寺址ニ就テハ未夕確說ナキモ城乾里所在ノ寺 址或ハ之ニ相當セザルカ」라 하였는데 城乾里의 「寺名不詳廢寺址」 三個所中の 하나로서 「製紙傳習所ノ西數丁田畝ノ間ニアリ現ニ礎 石ヲ存ス」라 한 것이 있다. 또 大坂金太郎 「慶州新羅廢寺址의 寺名 推定に就て」(『朝鮮』一九七, 一九三一年七月稿)에는 靈妙寺에 對 한 論及이 아니 보인다.
- ② 前舉한 東國輿地勝覽 慶州靈妙寺條參照
- ③ 三國遺事卷三 阿道基羅條에 京都內七處伽藍之墟를 들고 「五日沙 川尾今靈妙寺。善德王乙未始開」라 보인다.
- ④ 三國遺事卷二 孝恭王條 卷四 二惠同廢條

公州邑 玉龍洞 古墳出土의 遺物

金 永 培

一、發見의 動機

一九六二年 四月 二十七日 公州邑 玉龍洞 山二十의 一番地下麓에 山田 이 있어 (所有者 黃興龍)藥圃로서 耕作되고 있는데 近者 擴張開墾作業中 에 偶然히 古墳이 發見되었다.

二、出土遺物의 接受와 事後整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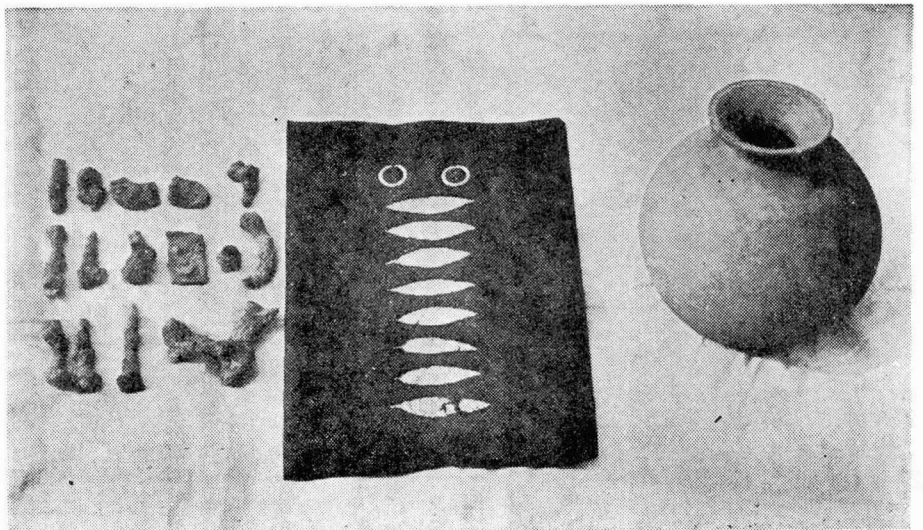
(1) 四月 二十九日

古墳이 發掘되었다는 情報를 얻어 出土遺物의 種類와 數量을 把握하고 現地에 急遽出張한즉 多 幸히도 遺物全部가 玉龍洞洞長에게 保管中임을 알고 即時 洞長을 訪問하여 調査한즉 入手한 情報와 相違가 없으므로 保管中인 遺物을 接受하는 同時에 現場을 豫備調査하였다. (한가지 아슬아슬한 것은 遺物을 四月 二十九日 저녁에 賣却할 豫定이었다는 것이다)

(2) 四月 三十日 人

夫를 使役하여 古墳의 整理와 調査에 着手하였다. 함부로 發掘되어 攪亂된 古墳

을 整理하고 發掘時의 人夫들에게 原狀態를 물어 檢討하여 實測 撮影을 完了하였다. 古墳은 月城山의 西쪽으로 뻗은 枝脈下麓에 거의 南面한 石室古墳으로서 公州宋山里에 多數 遺存한 穹窿狀天井을 가진 百濟時代 石室古墳構造와 같으나 規模는 若干 작다. 美道와 玄室로 區分되는 바 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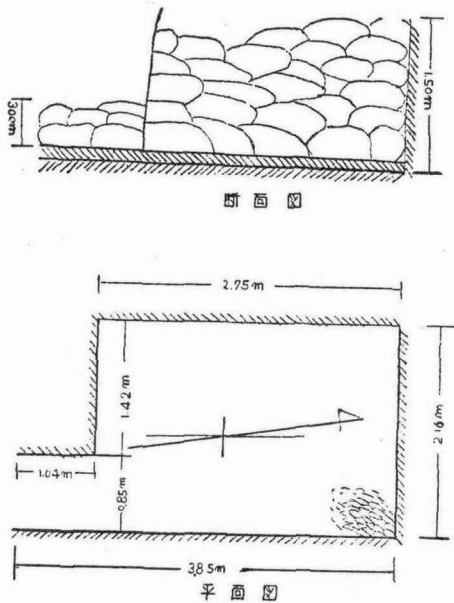


井은 이미 崩壞되었고 盜掘을 거친 古墳임이 確實하며 玄室內에는 粘土가 充滿되어 天井의 붕괴는 相當히 오랜 時日이 經過됨을 알 수 있었다. 遺物의 配置狀態는 完全한 位置를 確定키는 어려우나 人夫陳述에 依하면 土器가 있던 곳은 屍體安置部分의 西쪽 옆으로 推定되며 耳飾은 屍體의 頭部에 該當되고 純金製裝飾具는 胸部近處로 推定되기 때문에 服飾品의 一種으로 推定되며 馬具 其他 木棺飾金具等은 그 周圍에서 出土된 듯하다. 玄室바다을 全面에 自然板石을 不規則하게 깨뜨리어 魚鱗狀으로 가랐던 것을 알 수 있고 羨道의 蓋石과 玄室天井은 完全除去되어 原形을 찾을 수 없으며 穹窿天井의 構築狀態가 玄室北壁에 若干 殘存하고 있다.

三、出土遺物の種類와 數量

(1) 銅心金被素環耳飾 壹雙 徑 一一 cm

(2) 純金製竹葉形裝飾具 八枚 純金을 薄片으로 두드려늘여서 竹葉形으로 만들고 周邊에는 날카로운 金屬道具로서 늘려서 인출기의 模樣을 나타내었으며 葉根에는 바늘이 들어갈만한 고리를 만들어 실로 꿰어서 衣服等에 附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八枚가 똑같은 樣式이나 크기는 若干씩의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平均 大를 보면 長이 七 cm 幅이 一·八 cm 이다.



若干씩의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平均 大를 보면 長이 七 cm 幅이 一·八 cm 이다. (3) 土器 丸底灰色土器 壺로서 全體에 繩帶紋의 表現되어 있고 高一八·五 cm 口徑 八·

八 cm 胴徑 一七·八 cm 이다. (4) 鐵製裝飾具 木棺에 쓰여진 釘과 棺마구리 裝飾具 馬具等인데 馬具는 鐵製轡等이다.

青陽 長谷寺 上大雄殿의 方博

李 殷 昌

青陽郡 大峙里 長谷里 七甲山 長谷寺에는 國寶二七二號 上大雄殿이 있으니 오랜 歲月이 흐르는 동안 累次의 補修를 거쳐 建立當初의 모습인 많이 바뀌어졌으나 아직도 麗代의 遺制를 볼 수 있고 床面에는 梵髻가 깔려 있다. 이는 法堂建築當時에 깔았던 것으로 至今까지 傳해오는 것이니 이것이 이에 紹介하고자 하는 高麗^①有紋方博이다.

有紋方博은 灰黑色을 하였고 그 크기는 縱橫이 二三·五 cm 로 正方形을 이룬 方博이며 그 厚六 cm 이다. 博面 中央에 아름다운 八葉蓮花紋이 있는데 蓮瓣마다 川字型 線條가 陽刻되고 子房部는 圓版內에 四葉蓮花紋으로 區劃하고 그 안에 數個의 蓮實子가 表示되었다. 博面 四周로는 모듬의 緣郭線으로 두르고 바깥쪽의 雙線과 안쪽의 單線안의 空間에 流麗한 唐草紋을 線刻하여 있다. 興王寺 西南建物 址出土 畫紋^② 釉博의 紋樣보다는 簡單한 것이지만 그 紋樣의 意匠에 있어서는

